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태곤* 현병환**

I. 서론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현대의 모든 국가는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세정책을 펴고 납세자들에게 조세의 납부를 독려한다. 반면에 납세자들은 조세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납부가 국가의 공공복리 및 치안의 유지 등 간접적인 급부는 있을지라도 납세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급부는 없으며 또한 납세자의 가치분 소득을 줄이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수단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들은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 or Tax Evasion)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여러 정책에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세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첫째,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둘째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방법을 통하여 조세회피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조세회피의 개념 및 유형

1) 조세회피의 개념

오늘날 납세자의 조세회피 현상은 너무나 보편화된 경향이다. 오히려 조세회피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사회적으로도 만연한 듯 보인다. 이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수평적·수직적 형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조세회피란 납세자가 조세납부로부터 벗어나려는 모든 행위이다. 조세회피를 법적 측면과 관련지어 합법적으로 자신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행위를 절세로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조세범칙행위를 조세포탈로 구분하기도 한다. 어느 유형에 속하든지 양자는 모두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개별 납세자의 세후 가치분 소득을 감소시키므

* 정태곤,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석사과정, 042-822-5286, taegon3386@hanmail.net

** 현병환,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042-280-4181, hyunvv@gmail.com

로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조세회피란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합법이든 위법이든 납세자가 조세납부로부터 벗어나려는 일체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개념을 합법적인 조세회피와 비합법적인 조세회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2) 조세회피의 유형

(1) 세무자료 미제출(무신고)

조세회피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다. 신고납부 기한내에 고의이든 과실이든 간에 세무자료의 미제출은 보통 조세회피로 추정되며 세무자료 미제출의 대표적인 예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신고 등의 무신고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2) 소득항목의 허위보고

납세자가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탈하기 위해 소득항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것을 양도로 위장신고 하는 행위 등이 있다.

(3) 회계처리의 조작

회계장부의 처리를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수법은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면, 매출의 누락, 매입의 과대, 기말재고자산의 과소계상, 가공비용의 계상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3) 조세감면혜택의 남용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남용하는 경우로 조세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등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거나 조세감면혜택이 큰 나라에 지점을 설치하여 본점의 소득을 지점에 이전하여 지점에서 감면을 크게 받는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4) 납세자의 해외도피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도 흔한 조세회피의 한 가지이다.

2. 선행연구

1) 이중환의 연구

이중환(1992년)은 납세자를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해서 납세자 유형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을 조사했다.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였고, 독립변수는 세율, 세율구조, 적발확률, 가산세율, 재정불공정성이었다. 연구결과, 모든 납세자에게서 세율과 조세회피행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율구조(누진세제)는 일반과세자만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쳤을 뿐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확률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적발확률이 높을시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역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재정불공정은 조세회피행위와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2) 이우윤의 연구

이우윤(1996)은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서 납세자의 조세포탈성향을 연구하였다. 그는 독립변수를 세법의 복잡성과 조세지식, 납세자의 인성적 특성,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으로 나누었고, 여기에 납세자의 직업분류와 탈세경험 유무라는 조절변수를 첨가했다. 종속변수는 조세포탈 성향 정도였다. 결과는 세제의 복잡성은 자유소득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탈세경험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제의 복잡성과 조세포탈 성향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성적인 요인 중 순응성과 조세포탈 성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책임성과 조세포탈 성향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중 성별은 탈세 유경험 자유소득자에 비해 탈세 무경험 근로소득자의 조세포탈성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전체적으로 조세포탈 성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중 성별은 탈세 유경험 자유소득자에 비해 탈세 무경험 근로소득자의 조세포탈성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은 전체적으로 조세포탈 성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은 탈세 무경험 근로소득자에 비해 탈세 유경험 근로소득자의 조세포탈 성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ong & Yabrough의 연구

Song & Yabrough(1978)는 North Carolina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윤리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조사했다. 이들의 연구결과 납세신고행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탈세사실의 적발확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신생활자나 전월세 입주자에 비해 기혼자와 자가소유자들의 납세윤리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과 납세윤리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설계

1. 변수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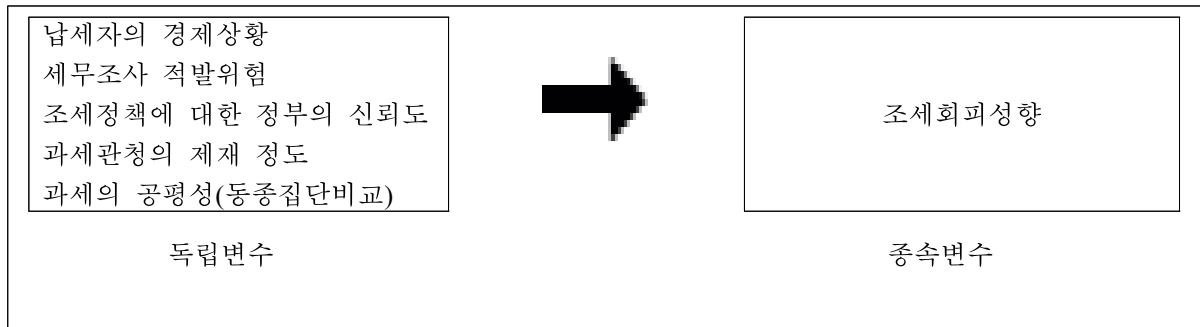
1) 독립변수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 중 납세자의 경제상황, 세무조사 적발위험,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과세관청의 제재 정도, 과세의 공평성(동

종집단의 납부세액 정도) 다섯가지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2) 종속변수

본 논문에서는 조세회피 요인별 조세회피성향을 검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조세회피성향으로 선택하였다.



<조세회피분석 모형>

2. 가설의 설정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를 설정하였고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납세자의 경제상황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사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를 꺼려한다. 매출액의 증가가 개인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는 경우이다. 즉 납세자의 경제상황(개인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여 검정해 보고자 한다.

【가설1】 매출액의 증가가 개인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다.

2) 세무조사 적발위험

조세기관이 감사의 강도를 높여 적발될 위험이 높아질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가설2】 세무조사의 적발위험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할 것이다.

3)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정부의 조세정책이 납세자에게 신뢰성을 준다면 납세자도 그 정책을 신뢰하고 기꺼이 조세부담을 수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3】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을 것이다.

4) 과세관청의 제재정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산세의 부과등으로 인해 조세회피를 억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4】 과세관청의 제재정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감소한다.

5) 과세의 공평성(동종집단의 납부세액 정도)

선행연구에서는 과세의 공평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상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공평성(동종집단의 납부세액 정도)이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미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5】 자신의 조세부담이 동종집단의 납부세액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한다.

3. 표본선정과 분석방법

1) 표본선정

조사대상은 대전·충청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표본수는 총 200여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설문지를 직접, 우편 또는 지인을 통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그 작성에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할 예정이다.

2) 설문지 설계

납세자의 조세회피요인을 설문조사에 의하여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서 개별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을 가한 다음,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질문은 줄이되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완성할 것이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연구는 납세자의 경제상황, 세무조사 적발위험, 정부의 신뢰도, 제재 정도, 과세의 공평성이 납

세자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는 SPSS 등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가설의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이 가설검증의 측정도구로서의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뢰도 검증(Cronbach's Alpha Test)을 할 예정이다. 또한 측정도구가 특정 개념이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할 것이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할 것이다.

IV. 분석결과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분석할 예정임)

1. 요인 분석
2. 상관관계 분석
3. 다중회귀 분석

V. 요약 및 결론

(실증분석을 시행한 후 정리할 예정임)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참고 문헌]

- 나철호(2016),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및 추정기업예측모형”,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근(1992), 세법학총론(증보6판), 세경사, pp.27~30
- 김병성(1994), “현행 세법상 조세회피 방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일(2000),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령아(2009),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윤성(2006),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승(2001),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운용(2000),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비교·분석”,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중소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섭(2012),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회피행위와 적발위험과의 관련성”,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환(2011), “조세회피와 사회정의의 기초적 접근”,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봉하(2001),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1993),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석무(1997), “조세법과 세무회계”, 세학사
- 이필우(1997), “조세론”, 법문사
- 전태영(1990),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엽·정정운(2014), “세법개론”, 상경사
- Christian, C. W. & S. Gupta., “New Evidence on ‘Secondary Evasion1’,”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5(1), 1993.
- Collins, J. H., V. C. Milliron and Daniel R. Toy.,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 A Contingency Approach,”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2.
- Black, B., H. Jang, and W. Kim, 2003, Does Corporate Governance Affect Firms' Market Values? Evidence from Korea, Stanford Law and Economics Olin Working Paper No. 237.
- Chan, K. H. and P. L. L. Mo, 2002, The impact of Firm Characteristics on Book-Tax Conforming and Book-Tax Difference Audit Adjus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4 (2): 18-34.
- Christial, C. W., Gupta, S., Weber, G. J. and E., “The Relation Between the Use of Tax Prepares and Taxpayers Prepayment Posit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1), Spring 1994.
- Davis, J. S., “A Perspective on Experimental Tax Research”,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5.